

2019년 7월 16일

# KIWOOM DAIL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사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 미 증시, 실적 시즌 앞두고 관망세 짙은 모습 팩트셋, S&P500 2분기 영업이익 전년 대비 3.0% 둔화 전망

### 미국 2Q 실적시즌 전망

미 증시는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가 유입되며 상승 출발 했으나, 차익 매물이 출회되며 하락 전환. 이후 본격적인 실적시즌을 앞두고 개별 업종들이 변화를 보이며 강보합권 마감. 특히 금융, 에너지 업종이 부진한 가운데 유틸리티 등 경기 방어주가 강세 보이는 차별화가 특징(다우 +0.10%, 나스닥 +0.17%, S&P500 +0.02%, 러셀 2000 -0.52%)

시장 조사업체 팩트셋에 따르면 2분기 S&P500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3.0% 감소 전망. 이는 지난 1분기(yoy -0.3%)에 이어 2분기 연속 둔화. 특히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 또한 전년 대비 0.8%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 실적 부진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물론 미국 기업들의 어닝 서프라이즈율이 70% 내외를 보여와 실제 발표치는 상향 조정되는 경향을 보였던 것은 사실임. 그렇다 하더라도 이익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

한편, 이미 2분기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은 컨퍼런스 콜에서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던 요인에 대해 달러 강세(26%), 무역관세(17%) 등을 꼽고 있음. 달러 강세의 경우는 과거에도 25% 내외의 기업들이 언급했으나, 무역관세의 경우 2018년 2분기, 3분기에는 각각 2%, 8%에 불과했었음. 그러나 18년 4분기(16%)에 이어 이번 2분기에는 17%를 기록하는 등 우려가 높아짐(19년 1분기는 9%에 불과-무역분쟁 완화기간), 결국 기업들은 미국의 대 중국 관세 발효에 따른 이익 둔화 가능성에 부담을 느끼고 있음을 시사.

이런 가운데 S&P500의 12개월 Fwd PER이 17.1배(5년 평균 16.5배, 10년 평균 14.8배)를 기록해 밸류에이션도 부담. 시장 참여자들은 연준의 금리인하 이슈가 이어지고 있으나, 실적 발표에서 예상을 크게 상회하지 않을 경우 매물 출회를 배제하지 않고 있음. 실제 현재까지 실적 발표된 기업들의 주가는 예상을 하회하면 5년평균(-2.5%) 보다 낙폭이 큰 3.0% 하락 했어 2분기 실적시즌에 대한 부담이 높아지고 있음

S&P500 업종별 12개월 Fwd PER

섹터	FWD P/E	5년 평균	10년 평균
경기소비재	21.8	19.0	17.1
부동산	19.7		
필수소비재	19.7	19.1	17.0
유틸리티	19.1	16.8	15.2
IT	19.7	16.9	14.9
커뮤니케이션	18.2	13.5	14.5
S&P500	17.1	16.5	14.8
소재	17.1	15.9	14.8
에너지	16.5	28.9	20.3
산업재	15.9	16.3	15.2
헬스케어	15.5	15.9	14.2
금융	12.2	12.9	12.4

자료: 팩트셋,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	지수등락률(%)	Close	D-1	지수	지수등락률(%)	Close	D-1
KOSPI	2,082.48	-0.20	홍콩恒生	28,554.88	+0.29		
KOSDAQ	674.79	-0.94	영국	7,531.72	+0.34		
DOW	27,359.16	+0.10	독일	12,387.34	+0.52		
NASDAQ	8,258.19	+0.17	프랑스	5,578.21	+0.10		
S&P 500	3,014.30	+0.02	스페인	9,323.60	+0.33		
상하이종합	2,942.19	+0.40	그리스	851.28	-0.82		
일본	21,685.90	+0.20	이탈리아	22,178.05	-0.02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복사되거나 대여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 금융주 부진

씨티그룹(-0.08%)이 예상보다 양호한 실적을 발표했으나, 장 초반 2% 넘게 하락하기도 하는 등 변동성이 컸다. 이는 순이자 마진이 2.67%로 둔화 된 데 따른 것으로 추정한다(yoy 2.70%, qoq 2.72%). 다만, 대출이 증가하며 우려를 해소한 점에 기반 장중 매수세가 유입되며 낙폭이 축소되었다. 그러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JP모건(-1.21%), 웰스파고(-1.37%), BOA(-0.78%) 등 금융주는 실적 부담 속에 하락했다. 코노코필립스(-1.80%), EOG리소스(-2.37%), 테본에너지(-3.49%) 등은 국제유가 하락 여파로 부진했다. 넷플릭스(-1.78%)는 경쟁이 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자 하락 했다.

반면, 길리어드사이언스(+2.73%)가 벨기에 생명공학 회사인 갈라파고스(+17.16%)와 51억 달러 규모 신약개발 협약을 체결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상승했다. 이에 힘입어 암젠(+0.68%), 바이오젠(+0.95%) 등 바이오 업종도 동반 상승했다. 한편, 시만텍(-10.68%)은 브로드컴(+1.03%)과의 인수 협상이 없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급락했으나 브로드컴은 반등을 보였다.

####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XOP)	-2.70%	대형 가치주 ETF(IVE)	-0.03%
에너지섹터 ETF(OIH)	-2.27%	중형 가치주 ETF(IWS)	-0.30%
소매업체 ETF(XRT)	-0.25%	소형 가치주 ETF(IWN)	-0.89%
금융섹터 ETF(XLF)	-0.56%	대형 성장주 ETF(VUG)	+0.12%
기술섹터 ETF(XLK)	+0.33%	중형 성장주 ETF(IWP)	+0.13%
소셜 미디어업체 ETF(SOCL)	+0.39%	소형 성장주 ETF(IWO)	-0.19%
인터넷업체 ETF(FDN)	+0.17%	배당주 ETF(DVY)	-0.12%
리츠업체 ETF(XLRE)	+0.13%	신흥국 고배당 ETF(DEM)	+0.16%
주택건설업체 ETF(XHB)	-0.12%	신흥국 저변동성 ETF(EEMV)	+0.24%
바이오섹터 ETF(IBB)	+0.53%	미국 국채 ETF(IEF)	+0.21%
헬스케어 ETF(XLV)	+0.22%	하이일드 ETF(JNK)	+0.14%
곡물 ETF(DBA)	-1.07%	물가연동채 ETF(TIP)	+0.25%
반도체 ETF(SMH)	+0.81%	Long/short ETF(BTAL)	-0.05%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472.47	-0.93%	+1.11%	+5.58%
소재	366.68	+0.17%	+0.42%	+1.58%
산업재	657.74	-0.41%	+1.57%	+3.92%
경기소비재	989.17	+0.34%	+2.30%	+5.69%
필수소비재	617.13	+0.20%	+0.94%	+2.37%
헬스케어	1,071.79	+0.21%	-0.48%	+1.85%
금융	467.48	-0.53%	+0.56%	+3.76%
IT	1,428.79	+0.30%	+2.58%	+7.34%
커뮤니케이션	170.84	+0.06%	+2.16%	+5.99%
유틸리티	308.69	+0.37%	+0.14%	+0.88%
부동산	233.29	+0.12%	-0.44%	+0.45%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 한국 주식시장 전망

### 종목 장세 지속 전망

MSCI 한국 지수 ETF 는 0.33% 하락 했으나 MSCI 신흥 지수 ETF 는 0.37% 상승 했다. 야간선물은 외국인의 순매도(-154 계약)한 가운데 0.05pt 하락한 273.45pt 로 마감 했다.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179.25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1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일 중국의 2 분기 GDP 성장률은 6.2%에 그쳤으나, 예상과 부합되었다는 점은 한국 증시에 긍정적이다. 특히 이는 중국 경기 둔화 우려를 완화 시켰고, 더불어 경기 부양정책에 대한 기대 또한 유입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한편, 중국의 산업생산을 비롯해 소매판매 등 실물경제지표가 지난달 발표치를 크게 상회한 점도 향후 한국 수출 증가에 대한 기대를 높인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전일 한국 증시는 발표되었던 중국 경제지표 보다 개별 기업 이슈에 반응을 보이며 하락 했으나, 전반적인 투자심리 개선 가능성을 높였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본격적인 실적 시즌을 앞두고 있다. 현재 12 개월 Fwd KOSPI200 영업이익이 151 조원에 불과하다. 지난 해 9 월 214 조원을 기록했으나, 미-중 무역분쟁이 격화되고,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자 지속적인 하향 조정이 이어져 왔다. 특히 반도체 업종이 지난 5 일 삼성전자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최근 1 개월 동안 5.4% 하향 조정 되는 등 이를 주도 했다. 그러다 보니 KOSPI 12 개월 Fwd PBR 이 0.81 배에 불과할 정도로 밸류에이션은 양호하지만 적극적인 매수세가 약화되고 있다. 결국 투자심리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2 분기 실적 발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실적 부진 우려는 많은 부분 시장에 반영이 되었다고 볼 수 있어 조정이 제한된 가운데 본격적인 실적시즌 이전에는 개별 종목별 호재성 재료에 민감한 반응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 주요 경제지표 결과

### 미국 제조업지표 개선

미국 뉴욕주 제조업지수는 전월(-8.6) 이나 예상치(1.6) 보다 개선된 4.3 으로 발표되었다. 세부 항목을 보면 신규수주가 전월(-12.0) 보다 크게 개선된 -1.5 로 발표되었으나 고용지수(-3.5→-6.1), 재고지수(-5.3→-10.9) 등은 하향 조정 되었다.

## 상품 및 FX 시장 동향

### 중국 철광석 가격 급등

국제유가는 멕시코만을 강타한 허리케인이 열대성 폭풍으로 위력이 약화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하락 했다. 비록 일부 지역에 홍수가 발생했으나, 해양시추시설 등에 대한 피해가 크지 않았다는 분석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추정한다. 더불어 이란의 로하니 대통령이 비록 전제조건(미국의 제재가 이어지지 않는다면)이 있으나 대화 가능성을 언급한 점도 국제유가 하락 요인 중 하나였다. 이는 미국과 이란과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약화되었다는 평가가 제기 되었기 때문이다.

달러화는 경제지표 개선에 힘입어 여타 환율에 대해 강세를 보였다. 한편, 피치가 연준이 올해 한차례 금리인하에 그칠 것이라고 발표한 점도 강세 요인 중 하나였다. 한편, 엔화는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지며 달러 대비 강세를 보였다.

국채금리는 중국의 경제지표가 개선되었으나, 실적시즌을 앞두고 주식시장이 경기 방어주 위주로 매수세가 유입되자 하락 했다. 다만, 신용평가사인 피치가 미 연준이 견고한 고용시장을 기반으로 올해 한차례 금리인하에 그칠 것이라고 주장하자 낙폭은 제한되었다. 전반적으로 경제지표가 개선되는 등 상승요인이 많았으나, 수급적인 요인으로 하락했다는 평가가 많다.

금은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유입되며 소폭 상승 했다. 구리 및 비철금속은 중국 실물경제지표 개선에 힘입어 상승 했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3.90% 철근도 1.99% 급등 했다.

주요 상품	증가	D-1(%)	D-5(%)	주요 통화	증가	D-1(%)	D-5(%)
WTI	59.58	-1.05	+3.33	Dollar Index	96.934	+0.13	-0.46
브렌트유	66.48	-0.36	+3.70	EUR/USD	1.1259	-0.10	+0.40
금	1,413.50	+0.09	+0.96	USD/JPY	107.88	-0.03	-0.77
은	15,365	+0.85	+2.09	GBP/USD	1.2517	-0.44	+0.02
알루미늄	1,842.00	+1.10	+1.82	USD/CHF	0.9842	0.00	-0.98
전기동	5,983.00	+0.81	+1.54	AUD/USD	0.7039	+0.27	+0.96
아연	2,444.00	+0.25	+2.78	USD/CAD	1.3048	+0.15	-0.37
옥수수	447.00	-2.67	+0.73	USD/BRL	3.7558	+0.49	-1.39
밀	507.75	-2.92	-0.64	USD/CNH	6.8742	-0.07	-0.22
대두	920.00	-1.23	+2.48	USD/KRW	1179.30	+0.01	-0.23
커피	110.25	+3.38	+3.62	USD/KRW NDF1M	1179.25	+0.22	-0.07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미국	2.089	-3.32	+4.11	스페인	0.503	-6.00	+7.00
한국	1.581	+1.60	+5.10	포르투갈	0.581	-6.80	+9.30
일본	-0.114	0.00	+3.10	그리스	2.291	-4.10	+22.40
독일	-0.251	-4.10	+11.50	이탈리아	1.645	-9.00	-13.80